

전주세계소리축제 월드뮤직 ‘다채’

말라위 · 인도 · 캐나다 · 폴란드 · 이집트 등 세계 각국 아티스트 참여 프로그램 개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세계 각국의 음악과 우리 소리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월드뮤직 무대를 선보인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는 말라위, 인도, 캐나다, 폴란드, 이집트 등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월드뮤직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를 세계 음악이 만나는 무대로 만든다고 밝혔다.

올해 25화제를 맞는 소리축제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음악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말라위를 대표하는 ‘마달리초 밴드’가 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을 만난다.

최근 유럽 월드뮤직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달리초 밴드는 대지의 숨결을 담은 듯한 음악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소리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음악을 대표하는 ‘요즈나 쓰리칸스’의 공연도 관객들의 관심을 모은다.

인도 전통음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무대로, 이국적인 선율 속에서 따뜻한 감성과 울림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과 폴란드 예술가들의 협업 무대도 마련된다.

‘쇼팽&아리랑’은 폴란드 작곡가 쇼팽의 서정성과 한국 민요 아리랑의 정서를 결합해 서로 다른 문화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 한국과 폴란드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섬세한 앙상블을 통해 음악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하는 ‘제니스 조 리 & 더 큐티즈 with 송봉금’은 재즈와 포크, 국악의 감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대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을 제시한다.

장르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월드뮤직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이집트의 만남인 ‘마지카 밴드’는 아랍의 신비로운 선율과 한국 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사운드로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월드뮤직 프로그램은 단순히 세계 각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예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자리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풍성

‘구석기 실험실 - 석기 만들어 쓰다’ · ‘박물관 하(夏)루’ · ‘8·15 대한독립만세’ 운영

정읍시립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3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사문화부터 정읍의 문화유산, 광복의 의미까지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특별교육 ‘구석기 실험실 - 석기 만들어 쓰다’, 상설체험 ‘박물관 하(夏)루’, 광복 81주년 기획체험 ‘8·15 대한독립만세’로 구성된다.

‘구석기 실험실 - 석기 만들어 쓰다’는 실험고고학 영상 창작자(유튜버) ‘체험판고고학’과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이다. 8월 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박물관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구석기시대 석기를 직접 제작하고 사용하면서 선사인의 생활기술과 도구의 기능을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다. 오는 28일부터 정읍시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상설체험 ‘박물관 하(夏)루’는 8월 4일부터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한다. 정읍의 대표 문화유산인 피향정을 주제로 한 연꽃 부채 만들기 등 체험 3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복 81주년 기획체험 ‘8·15 대한독립만세’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독립기념관 순회전시 ‘국가상징 태극기’와 연계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태극기와 무궁



정읍시립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3종을 운영한다.

화에 담긴 상징을 알아보는 다양한 체험을 선보인다.

이하수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배우고 즐기길 바란다”며 “가족과 함께 뜻깊은 여름방학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참가 방법은 정읍시립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박물관(063-539-6792 · 67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취학 전, 천 권 읽기’ 1호 주인공 탄생

익산시 영등도서관 유아 독서 프로그램... 정이든 어린이 1000권 완주

익산시 영등도서관이 운영하는 유아 독서 프로그램 ‘도란도란 취학 전, 천 권 읽기’에서 첫 번째 완주 어린이가 탄생했다.

익산시는 정이든 어린이(6세)가 약 1년 동안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며 독서를 이룬 끝에 1,000권 읽기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이든 어린이는 개인별 ‘마룡독서노트’에 독서 기록을 성실히 쌓아 프로그램 첫 인증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인증서와 기념품을 받고 영등도서관 어린이실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됐다.

‘도란도란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3~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하루 한 권씩 총 1,000권의 책 읽기를 지원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2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에게는 개인별 ‘마룡독서노트’가 제공된다.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은 뒤 권수만큼 독서 도장을 찍으며 기록을 쌓고, 200권을 달성할 때마다



단계별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1,000권을 모두 읽으면 인증서와 마룡 기념품이 수여되며 어린이실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시 효자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도서관 2층 카페 로비에서 올해 두 번째 ‘열린음악회’ 공연인 ‘베리베리’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어쿠스틱 듀오 ‘느린 날’의 공연 모습.

전주시 효자도서관, 25일 ‘열린음악회’ 개최

크로스오버 공연팀 ‘베리밤’ 무대... 10월까지 총 5회 공연 진행

전주시 효자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도서관 2층 카페 로비에서 올해 두 번째 ‘열린음악회’ 공연인 ‘베리베리’를 개최한다.

효자도서관 열린음악회는 지역 청년 예술인과 협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2023년부터 꾸준히 운영되며 효자도서관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열린음악회는 지난 6월 어쿠스틱 듀오 ‘느린 날’의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7월 공연에는 소프라노와 첼로, 클래식 기타 연주로 구성된 4인조 크로스오버 공연팀

인 ‘베리밤(BERRY-BOM)’이 무대에 오른다. 베리밤은 이나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조화롭게 구성한 공연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효자도서관은 이어 △가야금 중주팀 ‘드리락’의 ‘산울 따라 바람 따라’ (8월) △피아니스트 박성수의 ‘책장 사이로 흐르는 음악’ (9월) △현악 앙상블 ‘다네트’의 ‘베그타인 클래식’ 공연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효자도서관 열린음악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497)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